

검찰연합일보
모바일 보기고위공직자 범죄신고
02-6320-0200고위공직자 범죄신고
02-6320-0200

합참의장 후보자 주식거래·골프 논란에 여야 질타 쏟아져



김명수 합동참모본부 의장 후보자가 15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여야는 15일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김명수 합동참모본부 의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김 후보자의 주식 거래와 골프 논란에 대해 질타를 쏟아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김 후보자가 북

한의 미사일 도발 당시와 직후에 주식을 거래하고 골프를 쳤다는 의혹과 그의 딸이 11년 전 중학생 시절 학교폭력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국민의힘 원내대표인 윤재옥 의원은

“미사일 발사 상황을 관리할 직책에 있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군 고위 간부로서 국가적인 위기 상황에서 보일 처신으로서는 부적절하다”며 “국민들 눈높이에 맞는 처신을 해야 한다는 게 국민적 요구”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소속 한기호 국방위원장은 “자녀와 대화했음에도 (학폭 사건을) 기억 못한다고 하는 것은 문제(자녀 학폭)가 생긴 것 아닌가”라고 염두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근무 중 주식 거래는 중징계 사안이라면서 김 후보자 지명이 ‘인사 참사’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윤우덕 의원은 “북한이 미사일 발사 도발을 한 날 근무 시간 중에 십수 차례 주식 거래를 했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 다음 날에는 골프장을 다녔다”며 “근무 중 스마트폰으로 사무실에서 주식을 거래한 것은 중징계 대상”이라고 비판했다.

정성호 의원은 “국회의원의 가상자산 거래에 여당 대표가 ‘일반 공무원이 근무 시간 중 가상자산을 거래하게 되면 중징계에 해당할 것’이라고 말했다”면서 “근무 시간 주식 거래는 부적절한 정도가 아

게 생각한다”면서 “함정 근무도 많이 하 고 자식들과 직접 같이하는 기회가 자주 없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자녀 학폭)가 생긴 것 아닌가”라고 염두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근무 중 주식 거래는 중징계 사안이라면서 김 후보자 지명이 ‘인사 참사’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윤우덕 의원은 “북한이 미사일 발사 도발을 한 날 근무 시간 중에 십수 차례 주식 거래를 했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 다음 날에는 골프장을 다녔다”며 “근무 중 스마트폰으로 사무실에서 주식을 거래한 것은 중징계 대상”이라고 비판했다.

정성호 의원은 “국회의원의 가상자산 거래에 여당 대표가 ‘일반 공무원이 근무 시간 중 가상자산을 거래하게 되면 중징계에 해당할 것’이라고 말했다”면서 “근무 시간 주식 거래는 부적절한 정도가 아

니고 국민에게 유감을 표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설운 의원은 “북한 미사일이 날아다니는데 아무 관심 없이 주식 투자하고 골프 치고 있다.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다”며 “최악의 인사 참사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비난했다.

김병주 의원은 “북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도발이면 엄청난 도발인데 이런 것(골프)들은 아주 부적절하다”면서 “자녀 학폭에 대해서도 인사 검증단에서 여러 번 질문이 있었는데 후보자는 ‘학폭을 몰랐다’라고 답변했다”고 쏘아붙였다.

김 후보자는 자녀 학폭에 대해선 “관련 학생과 학부모에게 깊이 사죄드린다”고 고개를 숙였고, 근무 중 주식 거래에 “사과드리고 앞으로는 임무에만 집중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송진영 기자

류호정, 송영길 ‘어린놈’ 발언에 “인간이 좀 덜 된 것 아닌가”

정의당 류호정 의원은 15일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전 대표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향해 ‘어린놈’이라고 원색 비난한 것을 두고 “인간이 좀 덜 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라고 비판했다.

류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에 나와 최근 송 전 대표와 한 장관 간 설전을 어떻게 보느냐고 묻자 “(송 전 대표에게) 꾼대라는 말을 붙이는 것도 부적절하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송 전 대표가 2021년 4월 당 대표 출마 선언 때 ‘꼰대 정치’를 극복해야 한다고 말했는데, 민주당이 꼰대 정치를 극복하지 못했음을 스스로 증명한 것 같다”며 “꼰대 중에도 저 정도로 욕설하시는 분도

흔치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적인 자리를 지내고, 당 대표까지 지내신 분이 저런 말씀을 하시면 절대 안 된다”고 강조했다.

류 의원은 “송 전 대표도 노동운동 하면서 인권 변호사로 활동한 사회적 삶이 평가받아서 국회의원이 되고 정치를 하는 건데 좋지 않은 끝을 보는 것 같아 상당히 슬퍼하다”며 “(운동권) 선배들의 끝이 이런 거라면 정말 안타까운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반독재 민주화 세계관에 의하면 민주화 운동 선배들은 민주주의를 위해 싸우는 전사들이고 때때로 과격해져도 괜찮은 게 된다”며 “그런데 이럴수록 한 장



류호정 의원

관만 더 시민 지지를 얻게 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반독재 민주화 세계관은 역사 속으로 사라져야 할 것 같다”며 “이제 소임을 다한 것 같고 다음 페이지로 넘겨야 한다. 민주당이 아닌 제3지대에 힘을 더 많이 실어달라”고 말했다.

/ 황희정 기자

비명계 5선 이상민, 국민의힘 입당 가능성에 “배제 안 해”

더불어민주당에서 대표적인 비명계(비이재명계) 중진으로 꼽히는 이상민 의원(5선·대전 유성을)이 15일 탈당 후 국민의힘 합류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 의원은 이날 BBS 라디오에서 ‘민주당을 떠난다면 이준석 신당 합류 가능성’에서부터 국민의힘 입당 선택지까지 전부 다 열어놓은 것인가라는 질문에 “예”라며 “어느 가능성이나 배제할 필요는 없다”고 답했다.

그는 “어떤 씨를 뿌리고, 어떤 거름을 주고 물을 준다고 하더라도 민주당이 어떤 개과천선을 할 가능성이나 결함, 한계를 넘어서 가능성이 1%도 없다”며 “당내에서 ‘비껴야 한다’는 노력이 내부 총질 또는 배신자 프레임으로 공격을 받을 때 상처를 받지 않을 수가 없었다”고 토로했다.



기자회견 하는 이상민 의원

이에 대해 다른 비명계인 이원욱 의원은 KBS 라디오에 나와 “그런 논의를 해 본 적은 없다”며 “지금 당을 떠나지 않고 민주당을 지켜도 아주 공통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역할은 많이 있으리라고 보인다”며 탈당 논의에 선을 그었다.

친명(친이재명계)은 비명계 의원들이 탈당을 시사하고 이재명 대표 험지 출마를 요구한 것을 두고 비판했다.

/ 최재윤 기자

친명계 좌장 겸인 정성호 의원은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그냥 탈당하려고 하니까 좀 면이 안 서니까 ‘나 그냥 쫓아내 달리’ 아니면 탈당하려고 하는 그런 명분 쌓기가 아닌가. 이런 의심을 하는 분들도 많이 계신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결국은 공천권 내놔라. 포기 해라, 또는 당 지도부의 권한을 내려놓으라고 하는 지도부 편향성 발언만 하고 있다”며 “권력 투쟁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게 우리 당에 뭔 도움이 되는지 잘 모르겠다”고 질타했다.

안민석 의원은 SBS 라디오에 출연해 “당 대표 험지 출마 요구는 번지수를 잘못 짚은 것”이라며 “남에게 요구하기 전에 먼저 본인들이 그런 희생을 했으면 좋겠다. 상대가 받지 못할 요구를 하는 것은 바보가 아닌 이상 어떤 의도가 있지 않겠느냐”라고 비판했다.

그리면서 거취 결정 시점에 대해 “시간이 자꾸 늦춰지면 늦춰질수록 소위 공천을 흥정하는 것처럼 비칠 수 있고 역이용

‘도전’의 힘을 믿습니다

늘 그래왔듯이
LG는 도전하고 또 도전했습니다

지난 29년의 여정이
결실을 맺을 수 있게 된 것은

팬 여러분의
응원 덕분입니다

2023 LG트윈스의 한국시리즈 우승은
도전의 힘을 믿는 우리 모두의 승리입니다

뜨거운 응원을
보내주신 팬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LG

World EXPO 2030
BUSAN, KOREA

LG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카카오 김범수 오늘 檢 송치…SM엔터 주가조작 관련

금감원, 법률자문 변호사들도 함께 검찰에 넘기기로



SM엔터테인먼트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던 김범수 카카오 전 이사회 의장이 검찰에 송치된다. SM엔터 인수 과정에 법률자문을 제공한 변호사들도 함께 검찰에 넘겨진다.

서울남부지검 관계자는 이날 “김 전 의장은 오늘 송치될 예정이고, 관련 변호사들도 입건돼서 송치되는 것으로 보고받았다”며 “오늘 카카오와 카카오엔터테인먼트 관계자들을 포함해 총 6명이 금감원에서 송치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앞서 두 사람(카카오 투자전략실장 강모씨, 카카오엔터 투자전략부문장 이모씨)이 기소되지 않았는데, 이들과 같이 수사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앞서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지난달 13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와 강모씨, 이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이중 배 대표만 구속기소했는데, 강씨와 이씨 수사는 김범수 전 의장 수사와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보고 기소

김범수 카카오 전 이사회 의장이 23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에 SM엔터테인먼트 인수 주가 시세조종 의혹과 관련해 출석하고 있다.

를 유보했다는 취지다.

검찰 관계자는 ‘배 대표와 김 전 의장

률자문을 제공한 변호사들도 송치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변호사들과 카카오 관계자들이 공범관계인’라는 질문에는 “금감원에서 사건을 송치받으면 오늘부터 면밀하게 검토를 하고 결론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금감원 특사경은 지난달 26일 SM엔터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해 카카오와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법인, 카카오 배재현 투자총괄대표 등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는데, 김 전 의장은 당시 송치 대상에서 빠졌다.

금감원과 검찰에 따르면 배 대표는 올해 2월 SM엔터 기업지배권 경쟁 과정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SM엔터 주가를 하이브의 공개매수기인 12만원보다 높게 설정·고정할 목적으로 시세조종을 벌인 혐의를 받는다.

배 대표 등은 2월 16~17일과 27~28 일 합계 약 2천400억원을 동원해 SM엔터 주식을 장내 매집하면서 총 409회에 걸쳐 고가에 매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금융당국에 주식 대량 보유 보고를 하지 않은 혐의도 있다.

하이브와 카카오는 올해 초 SM엔터 인수를 둘러싸고 서로 공개매수 등으로 분쟁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하이브가 “비정상적 매입 행위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면서 시세조종 의혹이 불거졌다. 카카오와 카카오엔터는 공개매수 등을 통해 3월 28 일까지 SM엔터 지분을 39.87%(각각 20.76%·19.11%) 취득해 최대 주주가 됐다.

/ 이영민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2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서울시 핵·미사일 방호 발전방안’ 포럼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KBS 사장 ‘생태탕 보도’ 사과에

오세훈 “늦었지만 의미”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14일 박민 KBS 사장이 불공정 보도의 대표 사례 중 하나로 ‘오세훈 생태탕 의혹’ 보도를 꼽으며 사과한 것과 관련해 “늦었지만 이제라도 잘못을 바로잡는 목소리가 공영방송 수일간 집중 보도되고, 대선 직전에도 ‘윤석열 커피’와 관련한 뉴스파와 인터뷰를 주요 방송이 인용 보도했다”면서 “모두 확인되지 않은 의혹을 대대적으로 보도함으로써 투표권자를 혼란에 빠뜨린 사례”라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주주의를 뒤흔드는 손’이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이같이 밝히면서 “그러나 소 읽고 외양간 고쳐봐야 소는 돌아오지 않는 다”고 여전히 안타까운 심정을 토로했다.

그는 “앞으로도 상당수 국민은 ‘오세훈은 내곡동 땅을 방문해 생태탕을 먹었다’고 믿을 것”이라며 “거짓말은 쉽지만 해명은 불가능에 가깝다. 즉, 허위와 조작을 특징으로 하는 거짓 보도로 한번 명예가

/ 김현철 기자

전장연 “버스 태워달라한 지 2분만에 체포…국가공권력 남용”

‘불법 연행·구금’ 국가상대 손해배상 소송 첫 변론서 주장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측은 박경석 대표를 위법하게 연행·구금했다는 경찰이 지난 7월 버스차로 시위를 벌이던

워달라고 요청한 뒤 2분만에 현행법으로 체포됐다”고 주장했다.

전장연 측 소송대리인은 15일 서울중앙지법 민사68단독 백두선 판사 심리로 열린 박 대표와 활동지원사 박모씨의 국가 상대 손해배상 소송 첫 변론기일에서 이같이 말했다.

대리인은 “원고가 버스에 태워달라고 한 지 2분만에 현행법으로 체포됐는데, 범죄 혐의나 체포 필요성이 없는 상황이었다”며 “호송과정에서 훨씬 더 탑승이 불 가능한 차량으로 호송했을 뿐 아니라 조사가 끝난 뒤 즉시 석방하지도 않고 3시간 동안 구금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정부 측 대리인은 “체포 요건을

갖췄고 조사 이후 불법 구금하지 않았기 때문에 국가 배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내년 1월 24일을 다음 기일로 정하고 체포 당시 영상에 대한 검증을 진행하기로 했다.

박 대표는 이날 변론이 끝난 후 법원 앞에서 취재진에게 “재판을 통해 국가 공권력이 어떻게 남용되는지 밝혀내겠다”며 “경찰이 합법적인 집회 과정에서 전장연 활동가들을 고립시켜 폭력적으로 연행하고 불법적으로 감금·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대표는 올해 7월 14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버스정류장에서 장애인 이동권 보장 등을 요구하며 시위하던 도중 시내버스를 가로막아 운행을 방해한 혐의로 현행법 체포됐다가 이튿날 석방됐다. 이 과정에서 박 대표의 활동지원사도 함께 연행돼 조사받았다.

/ 손현수 기자

농식품부, 라면업체에 물가안정 협조요청

농림축산식품부는 권재한 농업혁신정책실장이 15일 국내 라면업체 1위 기업인 농심[004370]을 찾아 물가안정 정책에 협조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현장간담회에서 농심 관계자는 라면 원료인 감자전분과 변성전분의 수입 가격이 올라 원가 부담이 커지고 있다며 할당 관제 적용 연장 등 지원을 요청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9월 기준 감자전분·변성전분 수입가격은 1년 전과 비교해 30.9%, 평년보다 40.4% 각각 올랐다.

권 실장은 현장 건의에 “감자·변성전분에 대한 할당관제를 관계부처와 협의하겠다”며 “농심도 대표 품목인 라면, 스낵과 자 등의 가격 안정화와 체감 물가 완화에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농심은 밀 가격 하락분을 반영해 지난 7월 신라면과 새우깡의 출고가를 각각 4.5%, 6.9% 인하했다. 이에 따라 소매점 기준으로 1천원에 판매되던 신라면 한봉지 가격은 950원으로 50원 내렸고, 1천 500원이던 새우깡 가격은 1천400원으로 100원 싸졌다.

/ 한은정 기자

더 넓어진 예금자보호제도

2023년 10월 17일부터

- ✓ 연금저축
- ✓ 사고보험금
- ✓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 각각 5,000만원까지 별도 보호



한동훈 “민주당의 육설·탄핵 챌린지, 국민들이 지켜볼 것”

“탄핵은 가볍고 위헌정당 심판은 무거운가…기각될 것 알면서 막 던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15일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연일 자신을 비난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에 대해 “국민들께서 민주당의 육설 챌린지나 탄핵 챌린지를 잘 지켜보고 계실 것”이라고 말했다.

한 장관은 이날 서울 동작구 대방동 서울여성플라자에서 열린 ‘법무부-서울특별시 범죄피해자 원스톱 솔루션 센터 설치·운영 업무협약식’에서 기자들과 만나 “제 말이 뭐가 틀렸는지 객관적 지적을 해야 건설적인 토론이 가능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장관은 “저나 저에게 육하는 민주당 분들이나 모두 세금으로 월급 받는 국민의 공복이다. 공적 목적을 위한 객관적 토론이나 비판은 가능하다”며 “저는 그분들의 어떤 말씀이 잘못된 것인지 구체적으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15일 오후 서울 동작구 서울여성플라자에서 열린 법무부-서울시 범죄피해자 원스톱 솔루션 센터 설치·운영 업무협약식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로 지적해드렸는데, 거기에 육설로 반응을 두고 민주당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는 질문에는 “탄핵은 가벼운 제도고 위헌정당 해산 심판은 무거운 제도인가”

전날 ‘위헌정당 심판 청구’를 언급한 일

라고 반문하면서 “둘 다 민주주의 과정을 막기 위한 아주 극단적이고 무거운 최고의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각될 거 뻔히 알면서 대충 탄핵 리스트 만들어서 막 던지는 분들이 그런 말씀 하시는 건 이상하다”고 덧붙였다.

한 장관은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자신의 비대위원장 가능성을 언급한 것을 두고는 “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예측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제가 그 내용을 다 보지 못했다”고 말을 아꼈다.

김명수 신임 합참의장 후보자에게 제기된 ‘근무 시간 주식거래’·‘자녀 학폭’의혹을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이 겸증 과정에서 놓친 것 아니냐는 물음에는 “저희가 하는 인사 겸증은 객관적 프로토콜에 따른 자료수집”이라고 답했다. / 오정민 기자



경찰에 재출석하는 이선균

‘마약 혐의’ 이선균 디리털 감정 불가

물증 확보 또 실패

경찰이 마약 투약 혐의로 수사 중인 배우 이선균(48)씨의 디리털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맡겼으나 감정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15일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국과수는 최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대마·향정 혐의를 받는 이씨의 디리털을 정밀 검사한 결과 “체모” 증량 미달로 (마약류) 감정이 불가능하다는 의견을 경찰에 전달했다.

앞서 이씨는 소변을 활용한 간이 시약 검사에 이어 모발 등을 채취해 진행한 국과수의 정밀 감정에서도 음성 판정을 받았다.

경찰은 조만간 이씨를 다시 소환해 조사할 때 디리털을 다시 채취해 추가 감정을 의뢰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번 마약 사건 수사에서 뚜렷한 물증을 확보하지 못했고 “명확한 증거 없이 무리한 수사를 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됐다.

그러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마약범죄 수사는 국과수 감정 결과뿐만 아니라 관련자 진술과 포렌식 자료 등을 종합해 혐의 유무를 판단한다”며 “(수사가) 죽이 될지 밟히 될지 모르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씨는 올해 유흥업소 실장 A(29·여)씨의 서울 자택에서 대마초 등 여러 종류의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마약 투약 등 전과 6범인 A씨는 올해 3~8월 필로폰이나 대마초를 3차례 투약하거나 피운 혐의로 먼저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는 최근 경찰 조사에서 “A씨가 나를 속이고 악을 줬다”며 “마약인 줄 몰랐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현재 인천경찰청이 마약 투약 혐의로 수사나 내사 중인 인물은 이씨와 가수 지드래곤(35·본명 권지용)씨를 포함해 모두 10명이다. / 조규연 기자

더탐사 “청담동 술자리” 의혹제기 못 지워”…조정 불성립

장소 지목된 음악카페 사장이 낸 소송, 정식 재판으로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보도한 유튜브 매체 ‘시민언론 더탐사’ 측이 관련 영상을 삭제해달라는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더탐사 강진구 대표는 15일 서울중央지법에서 열린 ‘동영상 삭제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조정기일이 끝난 후 취재진에게 “기자 입장에서 영상을 삭제하는 것은 굴욕적인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강 대표는 “이미 법원의 거쳐분 신청

인용 결정으로 영상이 비공개된 상태에서 원고 측이 추가 피해를 보진 않는 상황”이라며 “손해 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가혹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이 소송은 ‘청담동 술자리’ 의혹 속 장소로 지목된 음악 카페 운영자 이모씨가 더탐사를 상대로 제기한 것으로, 이날 조정은 성립하지 않았다.

양측은 정식 재판을 통해 보도 내용의 진실성을 다투기로 했다.

더탐사는 작년 10월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30여명과 함께 청담동 고급 술집에서 심야 술자리를 가졌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술자리 장소로 이씨의 카페를 지목했다.

이씨는 이에 올해 6월 더탐사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불법행위로 손해를 봤으며 영상 삭제와 5억5천만원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올해 2월 강진구 더탐사 대표 모습

경찰은 지난달 이 의혹을 허위로 판단하고 강 대표 등 더탐사 관계자들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 문영근 기자

서울지하철 노조 22일 2차 무기한 총파업…사측에 최후통첩

향후 계획 발표 기자회견…“안전 공백 막아야” 정년퇴직 따른 충원 촉구

서울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이 사측의 인력 감축 계획 철회를 요구하며 이달 22일 2차 총파업을 예고했다.

앞서 지난 9~10일 시한부 경고 파업을 한 데 이어 무기한 파업을 예고한 것이다. 서울지하철 노사가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면서 다시 한번 시민의 발이 묶이는 ‘교통대란’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산하 서울교통공사노조는 15일 오전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 같은 파업 계획을 밝혔다. 노조는 특히 정년퇴직 인력에 따른 현장 안전 공백을 우려해 대책 수립을 촉구했다.

명순필 서울교통공사노조 위원장은 “공사 단체협약은 업무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결원을 충원하도록, 신규 채용하도록 하고 있다”며 “서울시와 공사는 법과 단체협약을 위반하는 것임을 알면서도 이행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노사 간 핵심 쟁점은 사측의 인력 감축 악이다. 대규모 적자에 시달려온 사측은 경영정상화를 위해 인력 감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사측은 기본적으로 막대한 누적 적자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2026년까지 2천212명을 감축해야 한다는 방침이다. 이런 기본 입장에 변화는 없지만 지난 8일 열린 최종 교섭에서 사측은 올해 하반기 660명을 신규 채용하는 안을 제시했다. 당초 예정된 하반기 신규채용 규모는 388명이었다.

하지만 노조는 나흘로 근무 방지를 위한 2인1조 보장 인력(232명), 수탁업무 인력(360명), 정년퇴직 인력(276명) 등 총 868명을 더 뽑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사측이 제시한 660명 신규채용 안에는



구호 외치는 서울교통공사 노조

정년퇴직으로 발생하는 결원에 대한 대책은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노조는 아울러 차량관리소 업무 자회사 위탁, 1~4호선 구내 운전 업무와 특수차 운전 자회사 이관, 궤도 유지·보수 외주 위탁 등 ‘안전 업무의 외주화’에 반대하고 있다.

명 위원장은 사측이 추진하는 비핵심 직군 외주화 계획과 관련 “전체 직원을 다 외주화해도 적자 문제는 해소 안 된다. 적자 원인은 따로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서울시와 공사가 외주화려는 업무는 사라지지 않는다”며 “비용 절감을 위해 더 적은 인원으로 업무를 수행하게 되면 안전사고가 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공사는 장기적 관점에서 정년퇴직을 통한 정원 감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퇴직 인원이 발생하면 단계적 업무 재설계 등을 통해 정원을 ‘자연 조정’해 나간다는 것이다.

명 위원장은 “공사가 진정성 있게 대책을 내놓으라는 절실히 심정으로 이를 경고 파업을 했지만 여전히 대안이나 대책은 찾아볼 수 없다”며 “서울시와 사측

이 대화와 협상보다 대결과 제압을 선택한다면 부득이 11월 22일부터 전면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선언했다.

다만 그는 “우리는 언제든지 모두의 안전을 위해 교섭할 준비가 돼 있다”며 “서울시와 공사의 진지한 입장 변화를 거듭 촉구하며 의미 있는 진전을 기대한다”고 협상의 여지를 뒀다.

이번 2차 파업도 현실화할 경우 공사 3개 노조 가운데 가장 조합원이 많은 민주노총 서울교통공사노조만 참여하게 된다.

함께 사측과의 교섭에 참여했던 한국노총 소속 서울교통공사통합노조는 경고파업에 불참한 데 이어 2차 파업에 참여하지 않을 방침이다.

지난해 공사와 교섭단의 협상 결과에 따라 제3노조인 올바른노조는 교섭권과 단체행동권이 없어 파업에 참여할 수 없다. 서울시와 공사는 강경한 입장이다.

시는 지난 9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명분 없는 파업을 즉시 철회하라”며 실무교섭 과정에서 마련된 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며 노조를 압박했다.

/ 진성훈 기자

World EXPO 2030 | 2030 부산세계박람회 우치를 신한금융그룹이 응원합니다
BUSAN, KOREA

player 모집

너답게 다 플레이 해

신한 p_{lay}

신한Pay를 기반으로 편리한 금융 서비스와 다양한 라이프 콘텐츠 등
마이데이터 시대를 함께 할 신한카드의 대표적인 종합생활금융 플랫폼

준법감사 실무자 제20230418-Cpn-001호(2023.04.18 ~ 2024.04.17)

1Lead by 신한카드

국회 외통위, 여야 합의로 내년 외교부·통일부 예산안 의결

해외 탈북민 보호 예산 등 외교부 1천739억원 순증…통일부 56억원 순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15일 전체회의를 열어 내년도 외교부·통일부 관련 예산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외교부 일반회계 예산은 정부안에서 1천739억원 순증한 4조3천26억원으로 통과됐다.

인도적 지원(ODA) 등 총 26개 사업에서 1천755억원 증액됐고, 북한 비핵화 촉진 및 이행검증 사업 등 8개 사업의 경우 16억원 감액됐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서 올해보다 축소 편성됐던 해외 탈북민 보호(민족공동체 해외협력사업) 예산은 다시 늘어났다.

외교부는 올해 불용 예산 발생 등을 감안해 올해(16억1천500만원)보다 약 10% 줄어든 14억5천400만원을 편성했지만, 북한이 코로나 봉쇄를 풀고 국경을 재개



인사 나누는 예산심사소위 여야 의원들

방하면서 탈북민이 늘어날 가능성 등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외통위는 정부안보다 8억900만 원 증액된 22억6천300만원으로 수정안을 통과시켰다.

대의견을 달았다.

국제질병퇴치기금은 정부안보다 257 억원 늘어난 1천280억원, 국제교류기금은 19억원 순증한 1천585억원으로 의결됐다.

통일부 일반회계 예산은 정부안보다 56억원 째 3천289억원으로 의결됐다.

통일정보자료센터 건립 등 15개 사업에서 179억원 감액됐고, 북한이탈주민 정착금 지급 등 21개 사업에서 123억원 증액됐다.

남북협력기금은 정부안보다 5억원 증가한 1조5천846억원으로 의결됐다.

외통위에서 의결된 내년도 외교부·통일부 예산안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거쳐 최종 결정된다.

/ 최병수 기자



정의당 신임 비대위원장 기자회견

정의당 “비례 1·2번 양보 가능” 선거연합정당 동참 제안

정의당이 15일 내년 총선에서 비례대

표 상위 순번을 양보할 수 있다며 진보정치 세력을 향해 선거연합정당 동참을 제안했다.

김준우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취임 기자회견을 갖고 “정의당 스스로 기득권을 내려놓고 시작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다양한 진보정당, 노동조합, 제3지대 정치세력과 연합해 다양한 정치 세력이 의회에 진입할 수 있도록 선거연합정당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어

“선거연합정당을 통해 정의당 뒷이 줄어들더라도 비례명부 상위 순번을 과감히 포기하겠다”며 “비례대표 후보” 기호 순번 1, 2번을 열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MBC 라디오에서도 “비례 1, 2번이라도 정의당에서 활동하지 않았던 외부 분들에게 내놓겠다”며 “건강한 정치세력으로 계셨던 분들과 연대해서 그분들에게 자리를 내어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 노태운 기자

말했다.

당선 가능성이 높은 비례대표 후보 명부 상위권을 연합 대상 외부 세력에 양보 할 수 있다는 의미다.

김 위원장은 “선거연합정당은 정의당과 한국 사회의 새로운 청사진을 공유할 모든 세력이 내년 총선에서 지역구와 비례대표 선거를 공동의 이름으로 대응하겠다는 의미”라며 “필요하다면 당명 개정도 마다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연대 범위에 대해서 “지난 전국위원회에서 연합 대상을 ‘민주노총’ 등 노동 세력, 녹색당 등 진보정당, 지역당 등 제3의 정치세력’이라고 명시했다”며 “사회민주당이나 ‘새로운선택’ 일 수도 있고, 진보당이나 노동당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혁신의 진로, 선거연합의 범위와 방식에 관해 당원 민주주의에 기반을 둔 더 넓은 논의 과정을 만들어 나가겠다”며 공론화 방식의 당원 설문조사, 당원 총투표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 노태운 기자

신규택지 발표장서 드러난 與기초단체장 ‘메가서울’ 온도차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신규택지 브리핑에서는 ‘메가서울’을 둘러싼 수도권 기초자치단체장들의 온도 차이가 뚜렷하게 드러났다.

서울과 경계를 접한 구리시는 주민투표를 통한 통합 필요성을 피력했고, 인구 100만명이 넘는 특례시인 용인시는 자체 기능 강화를 앞세웠다. 이날 브리핑에는 수도권 신규 택지 후보지의 지자체장인 백 시장은 “이번 회기나 (총선 이후 구

서울특별시

복지사각지대가 없어야
안심이다

안심소득은 현(現) 사회보장제도가 가진 문제점을 보완해
소득양극화 및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할 최선의 대안입니다.

더 꼭넓고 두텁게 지원해 안심인
서울 안심소득

- 더 꼭넓게 지원해 복지사각지대를 최소화합니다 (하위 33%까지 지원)
- 어려운 분들에게 더 많이 지원해 소득격차를 완화합니다 (부족 금액의 절반 지원)
- 근로능력과 부양가족의 입증 절차 등이 간소합니다
- 일할수록 가처분 소득도 증가해 경제활성화에 보탬이 됩니다

복지사각지대의 안심을 보다! **안심소득**

- 더 꼭넓게 지원해 복지사각지대를 최소화합니다 (하위 33%까지 지원)
- 어려운 분들에게 더 많이 지원해 소득격차를 완화합니다 (부족 금액의 절반 지원)
- 근로능력과 부양가족의 입증 절차 등이 간소합니다
- 일할수록 가처분 소득도 증가해 경제활성화에 보탬이 됩니다

복지사각지대의 안심을 보다! **안심소득**

이재명 “R&D 예산 대폭 삭감 황당무계…반드시 복원”

“與, 반성하고 복구하겠다는 건 다행”…‘탄핵 남발 지적’ 등엔 침묵



이재명, R&D 예산 관련 발언

을 일부) 복구하겠다고 하는 것은 다행”이라며 “맡은 해놓고 행동은 하지 않는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걱정되는데 그러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또 국민의힘의 ‘메가시티 서울’ 구상을 겨냥, “국토 균형발전은 우리 시대의 정말 핵심적인 과제”라며 “최근에 서울 팽창론이 우리 주민들에게 상당한 실망감과 좌절감을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가 정책을 논할 때는 장기적 비전을 갖고 국민과 국가의 입장에서 신중하게 논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며 “표를 얻기 위해서는 던지기식 정책 남발은 국민과 국가에 도움이 안 된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이 탄핵 카드를 남발한다는 지적이 있다”, ‘험지 줄마 요구에 대한 입장은 무엇이냐’ 등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 송원기 기자

박진 외교부장관, APEC 회의서

“부산엑스포, 복합위기 해법논의 최적의 장”

박진 외교부 장관이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외교통상합동각료회의에 참석해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 노력을 설명했다.

15일 외교부에 따르면 박 장관은 현지시간 14일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주재한 APEC 외교통상합동각료회

의 1세션에서 한국의 2030년 부산 박람회 유치를 위한 APEC 회원국들의 지지를 호소했다.

박 장관은 특히 한국이 처음으로 주

에서 열렸다는 사실을 상기하면서,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목적이 APEC이 추구하는 ‘지속 가능한 포용적인 성장’ 비전과 맞닿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 서 부산세계박람회가 기후변화·디지털 격차·불평등 심화 등 복합 위기에 대응해 글로벌 해법을 논의하는 최적의 장소가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박 장관은 역내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고 포용적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디지털 연계성 증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오준수 기자

폭력·갈취는 옛말, '가성비' 좋은 대포통장에 눈 돌리는 조폭

자존심 버리고 보이스피싱 하부 조직에 가담해 쉽게 '검은돈' 만져

조직폭력배(조폭)들이 물리적 힘을 과시해 돈을 갈취하던 시대는 옛말이다.

경찰 집중 단속에 세가 약해진 사이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하부 조직에 가담해 쉽게 '검은돈'을 만지는 등 사업 경로도 다양해진 모습이다.

15일 경남경찰청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될 대포통장을 모집, 유통한 혐의(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로 구속한 전북 지역 조폭 30대 A씨 등 9명이 이처럼 변화한 조폭의 전형적 사례라 할 수 있다.

A씨 등은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3월까지 요식업 등을 목적으로 한 허위 범인을 세우거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대포통장 70여개를 만든 뒤 이를 세탁자금 인출 조직에 넘긴 혐의를 받는다.

전북 군산과 익산에서 활동하는 이들 조폭은 허위 범인을 만들거나 하부 조직원들을 동원해 대포 통장을 수십 개 모집했다.

본부 격인 보이스피싱 조직으로부터 각 대포 통장에 입금된 범죄 피해금의 2%를 받는 조건이었다.



하지만 실제로는 대포 통장에 돈이 입금되면 몰래 돈을 가로채는 일명 '누르기'로 돈을 나눠 갖기도 했다.

경찰은 이들이 약 4개월 동안 세탁자금 인출 조직과 함께 캠핑 범죄 수익금이 약 6억원인 것으로 추정한다.

경남 경찰은 지난해에도 후배 조직원들이 포함된 대포 통장 모집 및 자금 세탁팀을 만들어 대포 통장을 개설, 유통한 혐의(전자금융거래법 위반)로 조폭 행동대장 30대 A씨 등 11명을 구속하기도 했다.

당시 이들은 '주식 리딩 사기' 조직의 자금을 대포 통장을 이용해 세탁해주며 수수료 명목으로 3%씩 총 40억 원을 챙겼다.

지난해 부산 조폭 조직인 철성파와 동방파도 이 같은 대포통장 모집 범죄에 가담했다가 동방파 두목은 구속되기도 했다. 경찰은 조폭들이 이 같은 범죄에 가담하는 이유로 '가성비'를 높는다. 자존심을 버리고 보이스피싱 조직 밑에서 일하더라도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것이다.

허위 범인을 설립한 뒤 그 범인의 지점을 개설하는 식으로 대포 통장 여러 개를 만들기만 하면 돈이 생기는 구조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이들이 대포 통장을 공급해줘야 세탁한 계좌로 돈을 입금받을 수 있기 때문에 조폭 입장에서는 위험 부담이 적은 셈이다. 또 협박과 갈취 행위는 구속 수사가 원칙이지만 이런 경우는 대포 통장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식으로 회피가 가능하다.

경찰 관계자는 "통장만 공급해주면 일정 수익이 보장되다 보니 유통업소 등을 관리하거나 서민을 겁박해야 하는 노력과 비교하면 가성비가 좋은 셈"이라며 "요즘은 조폭이라고 해도 각자 도생해야 하다 보니 자존심보다 실리를 태하는 조폭들이 늘고 있다"고 말했다.

/ 송진영 기자



의원들과 인사 나누는 최강욱 전 의원

검찰 '기자 명예훼손 1심 무죄'

최강욱 2심서 징역 10개월 구형

검찰이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전 의원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 5·2부(최태영 정덕수 구광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최 전 의원의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사는 "피고인은 허위 사실을 의도적으로 광범위하게 유포해 피해자를 무고하고 교사꾼으로 만들었다"며 "채널A에 대한 좋지 않은 감정을 가졌던 상황에 비춰볼 때 비방 목적은 넉넉히 인정된다"고 주장했다.

또 "세 치 혀가 사람을 잡는다"는 우리 속담이 있고 성경에서도 '죽고 사는 것은 혀의 힘에 달려 있다'고 했으며, 최근에는 '손가락 인격 살이'이라는 말이 등장했다"며 "정치 인플루언서인 피고인이 지지 세력을 이용해 언론사 기자에게 심대한 피해를 초래한 사건"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재판장에 출석한 이동재 전 기자도 "피고인 최강욱은 파렴치한 범죄를 다수 저지른 전과자이자 가짜 뉴스로 세상을 망가뜨리는 유해한 자"라며 "1심 후 최소한의 반성 없이 '도둑이 뭉뚱이를 들고 설친다'며 저를 맹비난한 피고인을 사회에서 격리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재판부에 엄벌 탄원서도 제출했다.

이에 대해 최 전 의원은 최후진술에서 "검찰과 언론의 유착으로 특정한 목적에 따라 한 사람을 짓밟아 범죄자로 만들고자 했다는 의도가 있다고 감히 말씀드린다"며 "이 사건의 본질이 왜곡되고 변질

되는 과정에서 검찰이 집요하게 추구한 프레임의 실제를 현명히 판단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장관도 겨냥해 "이 사건의 실제가 순진한 기자의 취재 활동을 빌미로 진상을 왜곡한 것인지, 부정한 권력을 사적으로 남용하려던 자들이 기자와 결탁한 것인지 이 사람들의 현재 위치를 봐도 알 수 있다"며 "검찰·수사를 못하게 해 검찰총장으로서 징계 사유가 인정된다는 판단을 받고도 대통령 자리에 있고, 기자가 숨겨주려 했던 자는 법무부에서 이 재판에 영향을 행사하려고 하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그의 변호인은 "이 사건의 게시글은 직접 인용이 아니라 각색"이라며 "피해자의 편지와 녹취록에다 배경 관련 사실과 사회적 상황을 포함해 각색한 것이라는 점을 누가 봐도 알 수 있는 형식"이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최 전 의원은 2020년 4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채널A 이동재 전 기자가 이철 전 베이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눈 놓고 유시민에게 돈을 건네줬다고 해라', '유시민의 집과 가족을 털고 (유시민이) 이사장을 맡은 노무현재단도 압수수색한다'라고 말했다"고 주장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1심은 지난해 10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의 법리상 비방 목적이 없었다는 이유로 최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자 검찰은 항소심에서 예비적 공소사실로 형법상 명예훼손죄를 공소장 변경으로 혐의에 추가했다.

/ 박민준 기자

'17년 전 아동 강제추행 등' 김근식, 항소심서 징역 5년

1심 징역 3년보다 형량 늘어…재판부 "아동 대상 범행 비난 가능성 높아"



김근식 모습.©인천경찰청

재판부는 이날 김근식의 공무집행방해와 상습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아동 강제추행 혐의와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총 징역 5년이 선고된 것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아동 청소년 강간 상해 혐의로 15년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출소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성폭력 범죄를 저지르기 시작했고, 이 사건 범죄는 누범에 해당한다"며 "또한 일

부러 성적 자기 결정권이 취약한 아동 청소년을 범행 대상으로 삼아 비난 가능성 이 높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는 원심과 마찬가지로 저지르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피해 복구 또한 이뤄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이 청구한 성 충동 약물치료(성 충동 약물치료)에 대해 원심과 마찬가지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에게 성 충동 약물 치료가 필요한 만큼 재판의 우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정신 감정의 '약물 치료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법정에서 증언하긴 했으나 이는 진술에 불과하고 반드시 피고인에게 치료가 필요하다고 진술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김근식은 2006년 9월 18일 경기도 소재 초등학교 인근 야산에서 당시 13세 미만이던 피해 아동 A양을 때리고 흉기로 위협하며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16년간 미제사건으로 분류됐던 이 사건의 기해자가 김근식이라는 사실은 검찰이 지난해 10월 김근식의 출소를 앞두고 경기·인천지역 경찰서 7곳에서 보관 중인 성범죄 미제사건을 전수 조사하는 과정에서 추가로 드러났다.

검찰은 2006년 아동 강제추행 미제사건의 신원미상 범인 DNA가 김근식의 DNA와 일치한다는 감정 결과를 대검찰청으로부터 회신받고, 김근식을 범인으로 특정해 그를 재판에 넘겼다.

원심은 올해 3월 김근식에게 징역 3년(강제추행 2년·공무집행방해 등 1년)을 선고하고, 전자발찌 부착 10년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20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김근식은 2006년 미성년자 12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지난해 10월 17일 출소 예정이었으나, 새롭게 제기된 '인천지역 아동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재구속됐다.

그러나 수사 결과 그가 인천지역 강제추행 사건의 범인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고, 이에 대해 김근식은 공소권 남용 등을 주장하며 무죄 주장을 펼쳤다.

변호인은 지난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과 무관한 혐의로 발부된 영장으로 구속된 이후 이뤄진 검찰 조사와 재판부에 제출된 진술조사가 위법하기 때문에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며 "증거능력이 인정된다면 하더라도 공소권 남용으로 공소 기각 판단을 내려달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최 전 의원은 최후진술에서 "검찰과 언론의 유착으로 특정한 목적에 따라 한 사람을 짓밟아 범죄자로 만들고자 했다는 의도가 있다고 감히 말씀드린다"며 "이 사건의 본질이 왜곡되고 변질

되는 과정에서 검찰이 집요하게 추구한 프레임의 실제를 현명히 판단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겨냥해

"이 사건의 실제가 순진한

기자의 취재 활동을 빌미로 진상을

왜곡한 것인지,

부정한 권력을 사적으로 남용하려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그의 변호인은 "이 사건의 게시글은 직

접 인용이 아니라 각색"이라며 "피해자

의 편지와 녹취록에다 배경 관련 사설

과 사회적 상황을 포함해 각색한 것이라

는 점을 누가 봐도 알 수 있는 형식"이라

고 혐의를 부인했다.

최 전 의원은 2020년 4월 사회관계망

서비스(SNS)에서 "채널A 이동재 전 기자

가 이철 전 베이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눈 놓고 유시민에게 돈을 건네

줬다고 해라', '유시민의 집과 가족을 털고

(유시민이) 이사장을 맡은 노무현재단도

압수수색한다'라고 말했다"고 주장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1심은 지난해 10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의 법리상 비방 목적이 없었다는 이유로 최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자 검찰은 항소심에서 예비적 공소사실로 형법상 명예훼손죄를 공소장 변경으로 혐의에 추가했다.

이에 대해 최 전 의원은 최후진술에서

"검찰과 언론의 유착으로 특정한 목적에 따라 한 사람을 짓밟아 범죄자로 만들고자 했다는 의도가 있다고 감히 말씀드린다"며 "이 사건의 본질이 왜곡되고 변질

되는 과정에서 검찰이 집요하게 추구한

프레임의 실제를 현명히 판단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겨냥해

"이 사건의 실제가 순진한

기자의 취재 활동을 빌미로 진상을

왜곡한 것인지,

부정한 권력을 사적으로 남용하려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그의 변호인은 "이 사건의 게시글은 직

접 인용이 아니라 각색"이라며 "피해자

의 편지와 녹취록에다 배경 관련 사설

과 사회적 상황을 포함해 각색한 것이라

는 점을 누가 봐도 알 수 있는 형식"이라

고 혐의를 부인했다.

최 전 의원은 2020년 4월 사회관계망

서비스(SNS)에서 "채널A 이동재 전 기자

가 이철 전 베이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눈 놓고 유시민에게 돈을 건네

줬다고 해라', '유시민의 집과 가족을 털고

(유시민이) 이사장을 맡은 노무현재단도

압수수색한다'라고 말했다"고 주장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1심은 지난해 10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의 법리상 비방 목적이 없었다는 이유로 최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자 검찰은 항소심에서 예비적 공소사실로 형법상 명예훼손죄를 공소장 변경으로 혐의에 추가했다.

이에 대해 최 전 의원은 최후진술에서

"검찰과 언론의 유착으로 특정한 목적에 따라 한 사람을 짓밟아 범죄자로 만들고자 했다는 의도가 있다고 감히 말씀드린다"며 "이 사건의 본질이 왜곡되고 변질

되는 과정에서 검찰이 집요하게 추구한

프레임의 실제를 현명히 판단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겨냥해

"이 사건의 실제가 순진한



iPhone 통화녹음이 필요할 땐
나만의 AI 개인비서, 에이닷

SKT의 AI는 누구에게나 있다

AI for Everyone

SK telecom



한총리 “이차전지, 안보·전략 자산 핵심…공급망 자립화 중요”

울산 고려아연 니켈제련소 기공식 참석…“2030년 이차전지 최강국 목표”



한덕수 국무총리는 15일 오후 울산 울주군 고려아연을 방문해 구내식당에서 근로자들과 점심을 먹기 위해 음식을 식판에 담고 있다.

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광물 가공과 소재 생산, 배터리 제조와 폐배터리 리사이클링에 이르기까지 ‘K-배터리’ 산업의 전 주기에 걸친 선순환 생태계도 더욱 견고하게 구축하려 한다”며 “기술 초격차의 마중물이 될 연구·개발(R&D)과 규제 혁신에도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한 총리는 “튼튼한 경쟁력을 밟거름 삼아 배터리 공급망의 자립화를 조기에 달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제로, 2030년 까지 명실공히 이차전지 최강국으로 우뚝 서도록 기업과 정부가 함께 힘을 모으자”

고 강조했다.

고려아연은 캠프코, 자회사인 KZAM 및 KPC와 함께 그간 이차전지 소재와 관련해 약 5천억원을 투자했고, 2027년까지 약 1조2천억원을 추가로 투자할 계획이라고 총리실은 전했다.

이 투자를 통해 이차전지 음극재 핵심 소재인 동박을 생산하고, 고순도 니켈 제련을 거쳐, 양극재 핵심 소재인 황산니켈과 전구체까지 이르는 벨류체인(가치 사슬)을 구축해 전구체의 중국 의존도를 낮추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장희수 기자



현대차 울산 수출선적부두 방문한 대통령

올해 1~10월 자동차 수출 580억달러 작년 연간 수출액 넘어서

올해 1~10월 자동차 수출액이 580억 달러에 육박해 지난해 전체 수출액을 이미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이런 가운데 국산 전기차, 스포츠유틸리티차(SUV), 프리미엄 차량 등 고부가가치 차량의 수출 비중이 높아지는 추세가

뚜렷해 K-자동차 산업의 체질이 개선되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산업통상자원부가 15일 발표한 ‘2023년 10월 자동차 산업 동향’에 따르면 올해 10월 기준 자동차 누적 수출액은 579억6천만달러로 작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33.9% 증가했다.

이는 연간 역대 최대를 기록했던 지난해 전체 수출액 540억7천만달러를 이미 넘긴 것이다. 산업부가 올해 수출 목표로 설정한 570억달러도 뛰어넘은 실적이다.

물량 기준으로 보면 1~10월 자동차 수출은 총 2천275만대로, 작년 동기 대비 22.0% 증가했다. 다만, 이는 지난해 전체

수출량(2천312만대)에는 다소 못 미치는 물량이다. 이미 수출액이 작년 수준을 넘어섰는데, 수출 물량은 작년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은 그만큼 ‘비싼 차’를 많이 수출했다는 의미여서 한국 자동차 산업에는 고무적인 통계다.

실제로 자동차 1대당 수출 단가는 2021년 2만400달러에서 2022년 2만1천300달러, 올해(1~10월) 2만3천100달러로 매년 높아지고 있다.

산업부 역시 최근 전기차 등 친환경차와 스포츠유틸리티차(SUV), 프리미엄 차량 수출이 확대되면서 수출단가의 상승이 두드러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10월 한 달간 자동차 수출은 지난해 같은 달 대비 19.8% 증가한 58억8천만달러를 기록해 역대 10월 수출 실적 중 최고를 기록했다. 물량 기준으로는 22만5천420대로, 작년 동월 대비 8.6% 증가했다.

/ 채민서 기자

유니클로 “히트텍, 전 세계에서 15억장 팔려”

“히트텍은 2003년 남성용 이너웨어(속옷)로 출시됐지만 평상복, 청바지 등 다양한 제품군으로 확장하며 패션 아이템으로 발전했습니다.”

김경진 유니클로 상품계획부문 부문장은 15일 서울에서 열린 히트텍 20주년 미디어 브리핑에서 “히트텍은 고객의 피드백과 의견을 바탕으로 계속해서 혁신·발전하고 있다”며 이렇게 밝혔다.

히트텍은 몸에서 발생하는 수증기를 극세섬유가 흡수해 열에너지를 바꾸는 기술이 적용된 기능성 흡습 발열 의류로, 섬유화학기업 도레이와 공동 개발했다.



유니클로는 히트텍은 올해 가을·겨울(FW) 파리 패션위크에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유니클로 제품을 경험했다고 밝힌 321명 중 51.2%가 히트텍을 착용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고 설명했다. 유니클로는 히트텍의 소재를 지속해서 발전시키고 상품구성도 보다 다양하게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박소희 기자

최초로 니켈이 함유된 다양한 원료를 처리한 고순도 황산니켈을 제련할 계획이다.

한 총리는 “정부는 지금까지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바이오를 국가 첨단 전략산업으로 선정했고 올해 7월 특화단

지를 지정했다”며 “울산을 비롯한 4개 지역이 국내 이차전지 산업의 중심축이 돼 앞으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대

한국의 성장을 이끄는 견인차가 될 것”

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이차전지 산업정책의 주목표는 핵심 광물의 안정적인 공급망을 구축하고

초격차 기술을 확보하는 데 있다”며 “이

를 위해 호주와 인도네시아 등 핵심 광물

보유국과 통상 협력을 강화하고 있고, 미

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이 새로운

성장 기회가 될 수 있도록 계속 협의해 나

3개 분기만에 실적개선 이마트 ‘본업 경쟁력 강화’ 탄력받나

정용진 부회장, 이례적 9월 조기 인사 단행…분위기 쇄신하고 체질 개선 속도

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리뉴얼 매장의 실적 개선 효과도 뚜렷하다. 지난 7월 종합 쇼핑몰 형태로 새로 단장한 ‘더 타운몰 킨텍스점’의 경우 리뉴얼 개장 이후 매출이 지난해 대비 약 10% 증가했다. 특히 미래 소비 주체인 10~30대 젊은 고객 비중이 기존 26.8%에서 31.7%로 높아진 것은 고무적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오프라인을 뒷받침하는 온라인 유통 사업군 역시 비용 절감 노력 등에 힘입어 지속해 실적이 개선되는 추세다.

G마켓의 1~3분기 영업손실액을 525억 원에서 322억원으로 38.7%, SSG닷컴도 893억원에서 646억원으로 27.7% 각각 줄었다. G마켓의 경우 올해 4분기에는 분기 기준 손익분기점 달성을 조심스럽게 기대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대대적인 체질 개선에 나선 이마트의 실적 개선 행보가 내년부터 한층 속도를 낼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이마트의 미래 청사진을 고심해온 정용진 부회장은 예년보다 한 달가량 앞당겨 이례적인 ‘9월 조기 인사’를 통해 지난 4년간 이마트를 이끈 강희석 대표를 내보내고 한채양 조선호텔앤리조트 대표를 새 대표로 앉혔다.

그룹 내 대표적인 ‘재무통’으로 꼽히는 한 대표는 이마트 외에 이마트24, 이마트 에브리데이까지 동시에 이끌게 됐다. 오프라인 유통 3사를 통합 운영해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겠다는 복안이다.

정 부회장은 이에 더해 한 대표에게 오프라인 유통 3사와 온라인 자회사인 G마켓·SSG닷컴 간 협업 강화를 통한 온오프라인 통합 플랫폼 전략의 숙제도 맡겼다.

/ 한용석 기자

신한알파로 자산이 알파만파

알아서 쟁겨주는 투자메이트 신한투자증권 신한알파 3.0

- 다른 증권사의 보유종목도 편하게 관리하고
- 투자자들의 매매 정보도 한눈에

※ 투자는 금융투자상품에 대하여 신한투자증권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투자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금융투자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 금융투자상품은 자산 가격변동, 환율변동, 신용등급 하락 등에 따라 투자원금의 손실(0~100%)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 국내주식 거래 시 모바일 기준 표준수수료는 0.1891639%(거래금액, 국가별 상이)이며, 자체한 사항은 홈페이지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한국금융투자협회 심사필 제23-02285호 (2023-06-26 ~ 2024-05-31)

신한투자증권



국내 유통 이마트가 ‘본업’에서 3개 분기만에 실적 개선에 성공하면서 향후 행보에 관심이 쏠린다. 조기 인사를 통해 새 수장을 앓고 ‘본업 경쟁력 강화’라는 기치를 내건 이마트가 성공적인 체질 개선을 통해 미래 성장의 기반을 다질지 업계에서도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다.

15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이마트의 올해 3분기 연결 기준 영업이익은 779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2.6% 감소했다. 매출은 7조7천96억원으로 22억원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영업이익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감소한 것은 고금리와 원자재 가격 인상의 직격탄을 맞은 신세계건설의 부진이 컸다. 신세계건설은 3분기 영업이익이 지난해 보다 551억원이나 줄어 이마트 계열사 가운데 가장 나쁜 성적표를 받았다.

다만 할인점과 트레이더스, 전문점을 빼더라도 한 이마트 별도 영업이익은 1천 102억원으로 지난해보다 약 5% (52억원) 늘어나 시선을 끌었다.

이마트가 분기 기준으로 영업이익 성

장세를 기록한 것은 지난해 4분기 이후 처음이다.

이마트의 분기 영업이익은 지난해 4분기만 해도 전년 동기 대비 91.6% 급증한 813억원을 기록했으나 올해 1분기 643억 원으로 29.9% 감소한 데 이어 2분기에는 258억원의 영업손실을 냈다가 3분기에 성장세로 전환했다.

이마트는 이를 두고 “본업 경쟁력 회복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고 자평했다.

이마트에서는 2020년부터 역점으로 두고 추진해 온 노후 점포 리뉴얼 작업이 서서히 성과를 내고 있다고 분석한다.

이마트는 ‘고객의 시간을 선점하자’는 콘셉트 아래 작년까지 36개 점을 재단장했고, 올해 상반기에도 8개 점의 리뉴얼 작업을 진행했다.

이는 미래 성장의 가장 중요한 지표 가운데 하나인 고객 수 증가로 이어졌다.

할인점의 경우 지난 2분기 고객 수가 지난해 동기 대비 5.5% 늘어난 데 이어 3분기에도 5.8% 증가세를 달성했다.

이마트 측은 “고객 수 증가는 향후 추가 성장의 발판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



이마트 연수점 찾은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

장세를 기록한 것은 지난해 4분기 이후 처음이다.

이마트의 분기 영업이익은 지난해 4분기만 해도 전년 동기 대비 91.6% 급증한 813억원을 기록했으나 올해 1분기 643억 원으로 29.9% 감소한 데 이어 2분기에는 258억원의 영업손실을 냈다가 3분기에 성장세로 전환했다.

이마트는 이를 두고 “본업 경쟁력 회복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고 자평했다.

이마트에서는 2020년부터 역점으로 두고 추진해 온 노후 점포 리뉴얼 작업이 서서히 성과를 내고 있다고 분석한다.

이마트는 ‘고객의 시간을 선점하자’는 콘셉트 아래 작년까지 36개 점을 재단장했고, 올해 상반기에도 8개 점의 리뉴얼 작업을 진행했다.

이는 미래 성장의 가장 중요한 지표 가운데 하나인 고객 수 증가로 이어졌다.

할인점의 경우 지난 2분기 고객 수가 지난해 동기 대비 5.5% 늘어난 데 이어 3분기에도 5.8% 증가세를 달성했다.

이마트 측은 “고객 수 증가는 향후 추가 성장의 발판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

금융의 모든 순간

NH농협금융

노후걱정 없는 든든한 연금준비가 시작된다

난, 든든한 퇴준생

"NH농협은행의
퇴직연금으로 미리
준비하는 든든한 노후
생활"

A woman in a beige blazer and a man in a grey suit sitting at a desk in an office, smiling. A laptop is open on the desk.

NH농협은행 퇴직연금과 함께 빈틈없는 퇴준생이 되어보세요



퇴직연금 수익률관리센터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고객맞춤형 수익률 관리



개인형 IRP

연말정산 세액공제는 물론 든든한 노후를 위한 솔루션



사전지정운용제도(디플트옵션)

적립금 자동 운용으로 장기적 수익률 제고

* [DC/IRP] 이 퇴직연금은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으로 운용되는 적립금에 한하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귀하의 다른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과는 별도로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단, 2개 이상 퇴직연금에 가입한 경우 합하여 5천만원까지 보호합니다.) ※ 실적배당형상품(펀드)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으며, 운용결과에 따라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고,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 당행은 위험성, 수익성, 수수료, 해지방법 등 금융투자상품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투자자는 투자하시기 전 반드시 영업점 직원으로부터 그러한 설명을 충분히 듣고 투자결정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가입하시기 전에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실적배당형상품(펀드)에 가입하시기 전에 투자내성, 환매방법 및 보수 등에 관하여 (간이)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과거의 운용실적이 미래의 수익률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 해외투자상품의 투자는 환율변동 및 투자대상 국가의 시장, 정치, 경제상황 등의 위험으로 시산(시가)가 변동되거나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적립금 수익률은 해당 운용관리기관을 통해 운용하시는 사용자 및 기인자의 운용성과이며, 해당 운용기관의 직접적인 자산운용결과가 아님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연금저축 계약기간 만료 전 종도해지하거나 계약기간 종료 후 연금 이외의 형태로 수령하는 경우 세액공제 받은 납입원금 및 수익에 대해 기타소득세(16.5%) 세율이 부과될 수 있으며, 과세기준 및 과세방법은 향후 관련 법률의 제·개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금융소비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라 충분한 설명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NH농협은행 영업점 또는 퇴직연금 전용콜센터(☎ 1588-599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상품담당부서 : 퇴직연금부] 준법감시인 심의일 : 2023-3112[2023.06.13~2024.06.12]



World EXPO 2030 |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BUSAN, KOREA NH농협은행이 응원합니다

NH농협은행

구리 토평·오산 세교·용인 이동 등 5곳에 8만호 신규 택지

평택지제역 역세권 이어 오산·용인에도 반도체 배후도시



김오진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국 5개 지구 8만호 규모의 신규 택지 후보지를 발표하고 있다.

경기 오산·용인·구리 등 5개 지구에 8만호 규모의 신규 택지가 조성된다. 오산과 용인 신규 택지는 화성~용인~평택으로 이어지는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의 배후 도시로 키운다.

서울 바로 옆에 붙어 있는 구리 신규 택지는 한강변을 따라 주거 단지를 배치하는 수변도시(waterfront city)로 만든다.

국토교통부는 15일 수도권 3곳, 비수도권 2곳 등 8만호 규모의 신규 택지 후보지를 발표했다. 지난해 11월 김포한강2(4만6천호), 올해 6월 평택지제역 역세권(3만3천호)·진주 문산(6천호)에 이은 윤석열 정부의 세 번째 신규 공공택지 발표다.

수도권 신규 택지는 오산세교3(3만1천호), 용인이동(1만6천호), 구리토평2(1만8천500호)로, 총 6만5천500호를 공급한다.

비수도권에서는 일자리와 인구가 증가 중 규모가 가장 크다. 오산시 가수동, 가장동, 꿀동 등 433만㎡(131만평) 일대에 조성한다. 이곳은 화성~용인~평택 반도

구리토평은 한강 조망 특화 주거단지로 비수도권서 청주분평2·제주화북2 신규 택지 지정

체 클러스터의 중심부다. 인접한 오산세교1(3만호)·오산세교2(2만호)와 끝으면 8만호 규모의 신도시가 된다. 1호선 오산역에 수원발 KTX(2025년 개통 예정)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연결이 추진되고 있어 철도 접근성이 좋아지는 곳이다.

정부는 이런 입지 특성을 고려해 연구·개발(R&D) 업무 등 반도체산업 지원 기관4호)에 1만4천500호를 공급한다.

함께 성장하며
행복을 나누는 금융

여행할 때도 하나뿐인 내 편

해외 수수료는 걱정 없는 편

환율 걱정 없이 환전하는 편

낯선 화폐도 두렵지 않은 편

그래서 이번 여행도 더 신나는 편

지금 떠나봐, 트래블로그로
하나뿐인 여행으로!



18개국통화 환전
수수료 무료 (~8/31)



해외 ATM 수수료
부담 제로



해외 가맹점
수수료 면제



목표환율에 맞춰
자동 환전 가능

하나금융지주 · 하나은행 · 하나증권 · 하나카드 · 하나캐피탈 · 하나생명 · 하나손해보험 · 하나저축은행
하나자산신탁 · 하나대체투자자산운용 · 하나에프앤아이 · 하나벤처스 · 하나펀드서비스 · 하나금융티아이 · 핀크

 **하나금융그룹**

• 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상품약관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용카드 발급이 부적정한 경우(개인신용평점 낮음 등) 카드발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카드이용대금과 이에 수반되는 모든 수수료를 지정된 대금결제일에 상환하여야 합니다. • 금융소비자는 해당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상환능력에 비해 신용카드 사용액이 과도할 경우, 귀여의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 개인신용평점 하락 시 금융거래와 관련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일정기간 원리금을 연체할 경우, 모든 원리금을 변제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나카드 준법심의 A-23-1127 (2023.06.22~2024.05.31)

서울시, 찾아가는 '아리수 트럭'으로 2만5천여명에 아리수 제공

서울시는 찾아가는 아리수 행사인 '아리수 트럭'을 통해 지난 7월부터 10월까지 학교와 지역 축제에서 총 31회에 걸쳐 2만5천280여 명에게 아리수를 제공했다고 15일 밝혔다.

올해 처음 운영을 시작한 아리수 트럭은 개인 컵(텀블러)을 가져온 시민에게 무료로 아리수와 아리수로 만든 음료를 제공하고 현장에서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체험 행사를 열었다.

우선 시내 17개 학교에서 열리는 운동회와 축제에서 아리수를 제공했다. 학생들에게는 사전에 텀블러를 준비하도록 안내해 쓰레기 없는 친환경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지난 8월에는 '아리수 동행단'과 함께



쪽방촌과 서울역 노숙인 지원센터를 찾아 여름철 폭염 취약계층에 아리수를 공급했고 한강 아쿠아슬론대회, 뚝섬 재사용 장터, 일자리 박람회와 영등포·노원·동대문

구 등 자치구 행사에도 참여했다.

손으로 두드리는 스텝퍼 게임, 페이스 페인팅, 아리수 스토리텔러가 진행하는 아리수 퀴즈 등 행사 성격에 맞는 다양한

시민 참여 프로그램도 운영해 시민의 호응을 얻었다.

특히 학교로 찾아가는 수돗물 이야기 강사 아리수 스토리텔러는 유치원과 학교에서 학생을 만나는 것을 넘어 각종 시 주최 행사에도 참여해 먹는 물 아리수를 알리는 활동을 활발하게 펼쳤다.

아리수 스토리텔러는 연말까지 운영되며 수업을 원하는 어린이집·유치원·초등학교 지도교사는 서울시 아리수 홍보관 홈페이지(<http://e-arisu.seoul.go.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유연식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은 "내년에는 더 많은 시민을 만날 수 있도록 아리수 트럭과 스토리텔러를 확대하겠디"고 말했다. / 신지호 기자



강원특별자치도 제2청사 현판 제막식

강원특별자치도 제2청사 개청 100일

영동·영서 균형발전 기틀

민선 8기 대표 공약 중 하나이자 영동·

남부권 도민들의 숙원인 강원특별자치도 제2청사(글로벌본부)가 지난 7월 개청한 지 100일이 되었다.

도는 1기획관, 3국, 4사업소 직원 287명으로 된 글로벌본부가 성공적인 연착륙으로 영동과 영서의 균형발전 기틀을 마련하고 있다고 자평했다.

15일 글로벌본부에 따르면 개청 초기 인 만큼 대내적으로는 내부 시스템 정비를 통한 조기 안정화에 주력하고, 대외적으로는 관련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한 점검 및 현장성 강화에 주력하고 있다. 이를 위해 분야별 각종 업무시스템을 조기에 정비해 조기 업무 혼선을 최소화하고 18개 시군과 주요 관련기관을 방문, 주요 현안 사업 협의를 통해 소통 채널을 강화했다.

경북과 경남, 전남 등 타 시도 지역본부 와도 공동 협력사업 발굴, 청사 운영과 서

련한 실무협의를 진행 중이다.

특히 제2청사 개청을 통해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현장 행정을 펼치는데 행정력을 집중한다.

글로벌본부 1층에 종합민원실을 열어 여권 민원뿐 아니라 제2청사 소관 3개국 업무 민원, 자격증 발급, 법정 민원, 국민신문고 등 일반민원 업무를 처리하는 한편 본청 업무 민원도 접수해 이첩한다.

또한 무인민원발급기(119종 민원발급) 설치 등을 통해 민원 업무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 컨트롤타워 구축으로 현장 사항 발생에 신속하게 대응한다.

아울러 수소에너지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으며 가행탄광 조기 폐광에 따른 선제적 대응책 마련, 41년 만에 이뤄지는 설악산 오색삭도 사업 착공식, K-연어 산업 등 실·국별 핵심 현안 사업들도 구체적인 성과 도출을 이뤄내고 있다. / 장호진 기자

세종시 대중교통 무료화 수정…월 2만원 정액권 '이용패스' 대체

내년 9월부터 시행…2만원권 구매하고 5만원 한도 내 사용

세종시가 대중교통 전면 무료화 대신 월 2만원 정액권으로 모든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세종 이용패스'를 내년 9월부터 도입 시행한다.

최민호 시장은 15일 시청 정경실에서 한 언론 브리핑에서 "시내버스 무료화보다는 대중교통 정액권 도입이 당면한 교통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고 재정 부담도 덜 수 있을 것이란 시의원, 교통전문가, 시민 의견을 수용해 이렇게 결정했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4월 2025년 시내버스 요금 무료화 시행 방침 담은 '대중교통 혁신 방

안' 발표 이후 시의원과 교통 전문가, 시민 의견을 수렴해왔다.

세종 이용패스는 시내버스와 어울링 (공영자전거) 등 지역 대중교통을 월 2만 원에 모두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 단순한 정기권과는 달리 세종시에 운행하는 모든 버스, 즉 대전·청주·공주 등으로 운행하는 하나의 카드에 모두 넣은 새로운 개념의 월 정액권이다.

세종시민의 소비 특성을 고려해 일반 시민은 2만원, 청소년과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은 무료로 구매할 수 있으며, 월

5만원 한도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다. 특히 매월 5만원 이하의 '미사용 금액'

은 자동 소멸하도록 설계해 시민 입장에서는 버스를 더 많이 타면 탈수록 이득을 볼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무제한 정기권과는 달리 세종시에 운행하는 모든 버스, 즉 대전·청주·공주 등으로 운행하는 관외 버스도 모두 이용할 수 있다.

셔틀과 두루타 등 세종시의 중요한 교통수단으로 자리매김한 수요응답형 버스도 이용할 수 있다.

시는 세종 이용패스 도입을 계기로 시 출범 12년 만에 교통정책을 전면 개편해 새롭고 과감한 시민 맞춤형 대중교통 서

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먼저 현재 58개 버스노선을 70개까지 늘리는 한편 출·퇴근 시간 배차시간을 10분 이내로 단축하고 대전·청주·공주 등 행복도시권의 통합 환승할인 체계를 구축 한다. 시민 누구나 어디서든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수요응답형 버스의 서비스 질 개선과 대상 지역 확대를 검토하고, 어울링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해 2030년까지 자전거 6천대 확보와 대여소 800곳 확충도 추진한다.

최민호 시장은 "이용패스는 세종시 교통정책을 혁신적으로 개선하고 고질적인 교통 문제를 해소하는 마중물이 될 것"이라며 "이용패스가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달라"고 시민들에게 당부했다. / 양희진 기자

전남 수산물 단체급식 협력기업 경북 아진산업 선정



전남 수산물 단체 급식 협력 기업

여명은 이날 전남 수산물을 구매해 만든 전복 스테이크, 곱창 김 쌈밥, 천일염과 전남 수산물로 만든 젓갈로 구성된 식단으로 단체식사를 하며 만족감을 표했다.

서종호 아진산업 대표는 지난 9월 전남 도의 수산물 판촉 요청에 "어려운 어민을 위한 것이라면 무엇이든 적극 돋겠다"고 약속했다. 단체급식 협력기업 지정으로 연 10억~12억원의 전남 수산물 소비 효과가 기대된다.

박상미 전남도 수산유통과장은 "많은 기업이 건강하고 맛있는 식사를 즐기고 어려운 어업인도 돋는 전남 수산물 단체급식 사업에 적극 동참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 권정석 기자

지금, 캐스퍼 사기 딱 좋은 달 Season of CASPER

11
November



2023 코리아세일페스타 캐스퍼 특별 기획전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최대 250만원 상당의 놀라운 캐스퍼 할인 혜택을 만나보세요

경기도일자리재단 토양오염 반환 미군기지 매입 '배임' 논란

경기도일자리재단이 오염 토양이 있는 동두천의 반환 미군기지 부지를 매입하는 과정과 관련해 '배임'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15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부천에 있는 경기도일자리재단은 2027년 동두천 이전을 목표로 반환 미군기지인 캠프 님을 부지 9천805㎡를 동두천시로부터 지난해 5월 매입했다.

이어 지난해 6~8월 동두천시 주관으로 진행한 해당 부지의 토양오염 정밀조사에서는 불소와 아연이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현재 토양정화 사업과 관련한 용역이 진행 중이다.

중간 용역 결과 정화 사업비로 100억원 가까이 소요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변호사 출신의 이성호(국민의힘·용인9) 도의원은 "일자리재단 정관

에 따라 캠프 님을 부지 매입은 기본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사항으로 이사회 의결사항인데 이사회를 거치지 않고 60여억원에 매입했다"며 "재단은 이사회 의결사항이 아니라고 도의회에 허위 보고도 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특히 "재단이 토양 오염 사실을 동두천시와 계약 전에 인지했고, 벌률자문 회신 자료 어디에도 계약을 진행해도 된다는 내용이 없지만 무과실책임 원칙상 토양오염 문제의 책임은 동두천시가 져야 함에도 정화 비용을 양 기관이 합의해 분담하도록 계약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재단과 동두천시가 절반씩 부담할 경우 정화비용 가운데 50억원은 재단에서 내야 하는 상황으로, 도민 혈세가 부담돼야 한다"며 "업무 관련자에 대한 문책과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일자리재단 관계자는 "캠프 님을 부지에 대한 매입을 위한 기관은 경기도에서 출연금 지원을 약속해 동두천시와 분담 계약을 맺은 것으로, 균형발전을 위해 투자한다는데 우리가 반대할 수는 없었다"면서 "정화비용이 100억 원 가까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돼 좀 당황스럽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토양오염 정화비용의 경우 경기도에서 출연금 지원을 약속해 동두천시와 분담 계약을 맺은 것으로, 균형발전을 위해 투자한다는데 우리가 반대할 수는 없었다"면서 "정화비용이 100억 원 가까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돼 좀 당황스럽다"고 덧붙였다. / 남현서 기자



이성호 경기도의원

금융으로 세상을 ● 롱게



2030
BUSAN

BUSAN is Ready

글로벌 도시 부산의 힘찬 도전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를
신한금융그룹이 응원합니다



World EXPO 2030
BUSAN, KOREA

신한은행 신한카드 신한투자증권 신한라이프 신한캐피탈 신한자산운용 제주은행 신한저축은행
신한자산신탁 신한DS 신한펀드파트너스 신한리츠운용 신한AI 신한벤처투자 신한EZ손해보험

+ 더 쉽고 편안한, 더 새로운 금융

신한금융그룹

'코번 몰빵' 삼성 완파한 정관장 김상식 감독 '다 함께 농구'

김상식 감독 "우리 팀은 모션 오픈스…한, 두 명에 의존하지 않아"

28점 10리바운드. 프로농구 서울 삼성의 코파 코번이 14일 안양 정관장과 흥경기 전반에 작성한 기록이다.

신장 210cm로 시즌 프로농구에서 가장 큰 체격을 자랑하는 '괴물 센터' 코번은 이날 도합 32점 18리바운드로 맹활약했다. 공격 리バ운드만 12개를 따냈다.

그래도 웃은 건 삼성이 아닌 정관장이었다. 81-63, 18점 차 패승을 거두며 농구가 '팀 스포츠'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보여줬다. 경기 후 김상식 감독은 자신의 농구 철학인 '모션 오픈스'의 승리라고 평했다. 김 감독이 자주 쓰는 표현인 모션 오픈스는 특정 전술보다는 방법론에 가까운 개념으로 받아들여진다.

유기적인 패스워크를 바탕으로 모든 선수가 공격에 참여하는 게 이상적인 모션 오픈스다. 김 감독은 팀 내 골밑, 외곽 공격수 모두가 각자 위치에서 패스의 흐름을 살리면서 개인의 공격력을 뽐내길 바란다.

삼성전에서는 이런 소망이 구현됐다.



안양 정관장 선수들

코번이 훌로 32점을 올린 삼성과는 반대로 정관장에서는 20점 이상 득점자가 없다. 대신 박지훈(16점), 최성원(12점), 이종현(11점), 맥스웰(9점), 정효근(8점) 등 여러 선수가 고르게 활약했다.

특히 이전 고양 소노 시절 자신감이 크게 떨어진 듯한 모습을 보였던 이종현은

이날 이원석을 상대로 초반부터 자신 있게 1대1 공격을 시도하며 1쿼터에만 11점을 넣었다. 최근 5연승을 달리며 단독 2위(7승 3패)로 올라선 팀의 경기력에 김 감독은 "100% 만족한다"고 웃었다.

김 감독은 "우리 모션 오픈스에서 공을 잡은 사람은 어떻게 공을 처리해야 하는

지, 잡지 않은 사람이 코너에서 어떻게 움직여야 하는지 등을 선수들에게 중점으로 이야기해"며 "이제 (선수들이) 돌아가고, 나오고 하는 움직임이 맞아떨어지는 게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또 "모션 오픈스는 한, 두 선수의 득점에 의존하는 게 아니다. 여러 명이 다 움직이면서 기회를 보는 건데, 물론 득점하는 선수가 나오긴 나와야 하지만 (코트에) 들어가는 선수마다 잘 움직여 줘야 한다"며 "우린 앞으로도 이걸 고수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이런 김 감독의 공격 전술 아래에서 주축으로 자리 잡은 이종현, 정효근, 최성원은 모두 이적생이다. 지난 시즌을 마치고 오세근(SK), 문성곤(kt) 등 '대어'가 모두 이탈한 정관장에 합류했다.

김 감독은 "새로 온 선수들이 생소할 수 있겠지만, 이런 움직임이 우리 팀이 강조하는 부분이다. 이런 게 한 번, 두 번씩 통하면 본인들도 '이게 통하는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자신감이 많이 불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자신감이 많이 불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 최준용 기자

류현진, ESPN 선정 FA 6등급…이정후는 야수 상위 12명 포함

"이정후, 추신수 이후 가장 재능있는 선수…고작 25세"



13일 서울 잠실야구장에서 열린 2023 KBO 한국시리즈 5차전 kt wiz와 LG 트윈스의 경기. 김하성과 이정후가 관중석에서 경기를 관전하고 있다.

자유계약선수(FA)가 된 '코리안 몬스터' 류현진(36)이 ESPN이 선정한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 FA 순위에서

가장 낮은 등급인 6등급으로 분류됐다.

ESPN 제프 파산 기자는 15일(한국시간)

발 투수들을 등급화해 소개했다.

ESPN은 류현진을 6등급 선수로 소개한 뒤 "그동안 아팠다"라고 짧게 설명했다.

적지 않은 나이와 부상 이력 등으로 좋은 대우를 받진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반면, 이 매체는 포스팅시스템을 통해 MLB 진출을 노리는 외야수 이정후(25)에 관해선 높은 평가를 했다.

ESPN은 FA 야수 부문 상위 12명 중 한 명으로 이정후를 소개하면서 "이정후는 추신수 이후 가장 재능있는 한국인 야수"라며 "그의 나이는 고작 25세로 KBO리그에서 뛸 때 매년 3할 이상의 타율을 기록했다"고 소개했다.

아울러 "이정후는 삼진을 거의 당하지 않았으며 발목 부상에도 외야 수비를 잘

할 선수"라고 평가했다.

한편 이 매체는 올 시즌 KBO리그 NC 다이노스에서 맹활약한 외국인 투수 에릭 페디도 류현진과 같은 FA 선발 투수 6등급으로 분류했다.

ESPN은 "페디는 새로운 슬라이더 구종으로 한국 무대를 지배했다"라며 "다만 큰 부자가 될 순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6등급 투수엔 랜스 린, 루이스 세베리노 등이 포함됐다.

슈퍼스타 오타니 쇼헤이와 일본 프로 야구를 평정한 오른손 투수 야마모토 요시노부는 '등급 외 투수'로 소개됐다.

1등급은 블레이크 스넬, 에런 놀라, 조던 몽고메리, 2등급은 에두아르도 로드리게스, 이마나가 쇼타, 소니 그레이가 이름을 올렸다.

어깨 수술을 받은 클레이턴 커쇼는 4등급에 포함됐다.

/ 한동준 기자



노박ож코비치

연말 세계 1위 확정 조코비치, 신네르와 3시간 10분 접전서 패배

통산 8번째 연말 세계 랭킹 1위를 확정한 노박ож코비치(1위·세르비아)가 시즌 마지막 대회 두 번째 경기에서는 패배를 당했다.

조코비치는 15일(한국시간) 이탈리아 토리노에서 열린 남자프로테니스(ATP) 투어 니토 ATP 파이널스 대회 사흘째 조별리그 그룹 2차전에서 앤디크 신네르(4위·이탈리아)에게 1-2(5-7 7-6<7-5> 6-7<2-7>)로 졌다. 이를 전 흘게르 루네(8위·덴마크)와도 3시간 5분 접전 끝에

2-1(7-6(7-4) 6-7(1-7) 6-3)로 승리한 조코비치는 이날은 3시간 10분간 싸웠으나 마지막 고비를 넘기지 못했다.

조코비치는 1차전에서 루네를 꺾고 올해 연말 세계 1위를 확정, 개인 통산 8번째 연말 세계 1위를 차지한 바 있다.

2001년생인 흄 코트의 신네르는 조코비치를 상대로 3전 전패를 당하다가 처음

으로 맞대결 승리를 거뒀다.

이 대회는 세계 랭킹 상위 8명이 출전해 조별리그 후 4강 토너먼트를 치르는 시즌 최종전이다. 그린 그룹은 조코비치와 신네르, 루네, 스테파노스 치치파스(6위·그리스) 4명으로 구성됐으며 앞서 열린 루네와 치치파스의 경기에서는 1세트 도중 치치파스가 허리 통증으로 기권했다. 치치파스가 남은 경기 출전을 포기하면서 후베르트 후르카치(9위·폴란드)가 조코비치의 3차전 상대로 대신 나선다.

그린 그룹에서는 신네르가 2승, 조코비치와 루네가 나란히 1승 1패를 기록 중인 가운데 3차전 경기 결과에 따라 4강에 오를 선수가 정해진다. 레드 그룹에는 카를로스 알카라스(2위·스페인), 달릴 메드베데프(3위), 안드레이 루블료프(5위·이상 러시아), 알렉산더 초베레프(7위·독일)가 경쟁한다.

/ 윤찬중 기자

최성원, 꾸옥응우옌 꺾고 프로당구투어 4강 진출

한국과 베트남의 3쿠션 자존심 대결로 관심을 끌었던 대결에서 '한국 3쿠션 간판' 최성원(류온스)이 베트남을 대표하는 3쿠션 선수 응우옌꾸옥응우옌(하나카드)을 잡았다. 최성원은 14일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 PBA 스타디움에서 열린 프로당구 PBA 6차 투어 NH농협카드 PBA 챔피언십 8강전에서 꾸옥응우옌을 세트 접수

3-1로 꺾고 4강에 올랐다. 직전 투어인 휴온스 챔피언십에서 데뷔 첫 우승 트로피를 들었던 최성원은 2

개 대회 연속 우승을 향해 한발 다가섰다.

비를 우이마즈(튀르키예·웰컴저축은행)는 응우딘나이(베트남·SK렌터카)를 애버리지 2,368의 압도적인 경기력을 앞세워 세트 접수 3-0으로 잡았고, 최원준과 노병찬도 각각 4강에 합류했다.

PBA 4강전은 15일 오후 1시 우이마즈-노병찬의 경기를 시작으로 오후 4시 최성원-최원준 경기로 이어진다. 결승 진출자는 오후 9시 30분부터 우승상금 1억 원을 걸고 대결을 벌인다.

/ 김윤수 기자

독도는 대한민국의 영토입니다

LX한국국토정보공사는 3D 정밀측량을 통해
독도가 대한민국 영토임을 재확인해왔습니다.

영토주권 강화, LX공사가 함께합니다



유네스코 연설대 선 세븐틴, 세계청년에 “꿈의 나눔은 희망의 나눔”

소통·연대·희망 메시지 전달, 1천220석 꽉차…유럽 첫 공연도

“꿈의 나눔은 곧 긍정의 나눔이자 희망의 나눔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돌 그룹 세븐틴이 공연 무대가 아닌 세계적 연설 무대에 섰다. 14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 있는 유네스코 본부에서 세븐틴은 이날 유네스코 총회와 함께 2년마다 열리는 청년포럼에서 단독 연설 무대를 갖고 세계 청년들에게 연대와 희망의 메시지를 전했다.

케이팝(K-pop) 가수가 유네스코 총회 금 행사에서 하나의 세션 전체를 배정받은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행사엔 현재 부상으로 활동 중단 후 재활치료 중인 에스쿱스 외 12명이 모두 참석했다. 인원이 많은 관계로 승관, 준, 우지, 민규, 조슈아, 버논 등 6명이 대표로 발언했다. 팀에서 프로듀서 역할을 맡은 우지는 각자 다른 환경에서 자란 13명의 멤버가 ‘세븐틴’이라는 이름 아래 하나가 된 과정을 소개했다.

우자는 “처음 데뷔했을 때 멤버가 너무 많다는 지적이 있었다. 멤버들 평균 나이



아이돌 그룹 세븐틴이 14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유네스코 본부에서 열린 제13회 청년포럼에서 단독 연설과 공연을 펼쳤다.

가 17살로 너무 어리다 보니 ‘멤버 간 잘 못 지낼 거다’, ‘그들만의 음악 세계를 구축하기 어려울 거다’라는 의심도 많았다”고 초반 어려움을 털어놨다.

우자는 이런 지적에도 “좌절하기엔 우린 너무 젊었다”며 “보컬, 퍼포먼스, 힙합 등 서로 다른 능력과 감정을 갖고 있던 멤버들이 서로 배우고 어울리면서 팀의 색깔이 나오기 시작했다. 유쾌하게 서로 가

르치고 배우는 세븐틴만의 교육법이 곧 우리의 성장법이었다”고 말했다.

특히 우자는 “앨범 작업할 때 정기적으로 단체 회의를 열어 멤버 모두의 이야기를 담는다”며 “멤버 수가 많아 의견을 모으는 게 쉽진 않지만, 오히려 그 과정들이 우릴 하나로 만들어줬다”고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중국 출신인 준도 중국어로 직접 “우리

는 각자 완벽하지 않을지 몰라도 함께라면 최고의 팀”이라며 “비록 현재에 많은 문제와 미래의 많은 불확실성이 있더라도, 함께라면 반드시 이겨낼 수 있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민규는 세븐틴의 ‘사회 나눔’ 활동을 소개했다. 데뷔 이듬해인 2016년 처음 정산을 받아 기쁜 마음에 데뷔 기념일에 맞춰 아프리카 탄자니아 어린이들을 위해 멤버들 이름의 염소 13마리를 기부했다고 한다. 이후 그 면 대륙에서 한 어린이가 사진과 함께 “꿈을 위해 염소를 잘 키우겠다”고 쓴 편지가 날아왔다.

민규는 “그 글귀를 보고 꿈을 위해 달려온 과정들이 생각났다”며 “저희는 그 탄자니아 아이가 그랬듯 꿈을 위해 함께 가르치고 배우고 성장하며 달려왔고, 첫 단독 공연의 관객이 800명도 되지 않던 그룹에서 이제 1천500만장 이상의 앨범을 판매하는 그룹으로 성장했다”고 말했다.

/ 이은정 기자



(여자)아이들 소연, 에스파 원터, 아이브 리즈 '노바디'

(여자)아이들·에스파·아이브 뭉쳤다

엑스포 기원 유치곡 발표

K팝 간판 걸그룹 멤버인 (여자)아이들의 소연, 에스파의 원터, 아이브의 리즈가 2030 부산세계엑스포 유치를 기원하는

스페셜 싱글 ‘노바디’(NOBODY)를 16일 오후 6시 발표한다.

14일 제작사 뮤스비(M:USB)에 따르면 ‘노바디’는 유명 프로듀서 엘 캐피탄(El Capitan) 등 유명 작곡가와 작사가 서지 음이 힘을 합쳐 만든 노래다.

소연, 원터, 리즈가 변갈아 부르는 ‘여서 와, 노바디(Nobody), 너만이 가능해, 노바디 바디 노바디 벗 유(Nobody body

/ 황지민 기자

美 LA 아카데미영화박물관서 송강호 회고전 관객과 대화하는 행사도 마련



‘공동경비구역 JSA’ 속 송강호

LA에 개관한 박물관이다. 이번 행사는 아카데미영화박물관이 한국 영화를 집중적으로 소개하고자 기획한 세 번째 행사다.

KF가 이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

박물관 측은 송강호를 한국 영화사를

장식한 주요 인물 중 하나로 꼽으면서

“영화에 대한 깊은 이해와 애정을 바탕으로

캐릭터를 입체적으로 선보이며 연기의

범위를 확장하고 있는 배우”라고 소개했다.

아카데미영화박물관은 아카데미시상식을 주관하는 아카데미재단이 2021년

KF가 이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

박물관 측은 송강호를 한국 영화사를

장식한 주요 인물 중 하나로 꼽으면서

“영화에 대한 깊은 이해와 애정을 바탕으로

캐릭터를 입체적으로 선보이며 연기의

범위를 확장하고 있는 배우”라고 소개했다.

아카데미영화박물관은 아카데미시상식을 주관하는 아카데미재단이 2021년

수사 파트너 된 안보현-박지현 SBS ‘재벌X형사’ 내년 1월 첫선



왼쪽부터 배우 안보현 박지현

배우 안보현과 박지현이 새 드라마에서 형사로 변신해 합동 수사를 펼친다.

SBS는 새 금토드라마 ‘재벌X형사’를 내년 1월 중 방송한다고 15일 밝혔다.

‘재벌X형사’는 철부지 재벌 3세가 강력팀 형사가 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

를 담은 통쾌한 코믹 액션 수사물이다.

티빙 드라마 ‘유미의 세포들’에서 애매

한 친구 사이를 연기했던 안보현과 박지현이 수사 파트너로 다시 한번 호흡을 맞춘다.

노는 게 제일 좋은 철없는 재벌 3세이자 낙하산 형사 진이수 역에는 안보현이 나선다. 재벌가의 막대한 재력과 인맥, 두뇌 회전력, 놀면서 체득한 각종 신체 능력을 총동원해서 범죄자들을 소탕한다.

박지현은 강력계 최초의 여성 팀장인 이강현을 연기한다. 범인 체포에 목숨을 건 베테랑 형사 이강현은 상대를 들었다 놨다 하는 넉살까지 겸비했다.

눈엣가시 진이수를 수사 파트너로 만나게 되면서 형사 인생에서 큰 전환점

을 맞이한다.

/ 백서연 기자

원투 오창훈, 암 투병 끝에 47세 나이로 사망



남성 댄스듀오 원투의 오창훈이 암 투병 끝에 47세의 나이로 사망했다.

오창훈은 2003년 JYP엔터테인먼트에서 송호범과 원투를 결성해 1집 ‘자 엉덩이’를 발표했다. 이후 소속사를 옮겨 ‘쿵쿵’, ‘못된 여자’, ‘별이 빛나는 밤에’ 등을 잇달아 내며 활동했다.

/ 권유희 기자

검찰연합일보

www.unionilbo.com

회장·발행인 송원기 주소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여의도동) 175

편집인 최두한 대표전화 1533-1545 / 팩스 : 0508-9192546

인쇄소 아이피디 E-mail unionilbo12@naver.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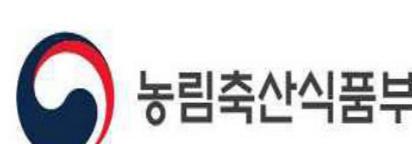
청소년보호책임자 서난영 등록번호 서울, 아53015 서울, 가50142

구독광고문의 : 1533-1545 / 구독료 : 월 15,000원, 1부 800원

* 본지는 신문윤리강영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쌀이 All 옳-다!
당신의 아침을 깨우는 ‘아침밥’

균형잡힌 건강한 식습관을 위해
우리 쌀과 함께 하세요!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우리금융그룹

'혹시모른다'는 말을 달고 사는 사람들

죽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보다
'혹시 한 사람을 더 살릴 수 있을지도 모른다'
라는 가능성으로 불길에 뛰어든다

혹시 당장 출동할지 모르니까
불어나는 짜장면보다는 볶음밥을 시키고

혹시 오늘 출근이 마지막일지 모르니까
늘 집을 깨끗이 정리하고 출근한다

그렇게 혹시 모른다의 가능성으로
소방관은 움직인다

우리금융그룹은
매일 다른 사람의 생명은 살리면서
자신의 생명은 마지막인 듯 살아가는
우리 히어로들을 지원하는 방법을 고민합니다

- 순직 및 상해를 입은 군인, 소방, 경찰 공무원 지원
- 전현직 군인과 군인 가족을 위해 트라우마 치유 지원사업

당신을 위하는 일이
우리 모두를 위하는 일니까

우리를 위해 우리가 바꾼다

[화재현장에 뛰어드는 소방관을
화염으로부터 지키는 방염 장갑]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우리금융그룹이 함께 응원합니다



우리금융그룹

우리금융지주 우리은행 우리카드 우리금융캐피탈 우리종합금융 우리자산신탁 우리금융저축은행 우리금융에프앤아이 우리자산운용
우리벤처파트너스 우리글로벌자산운용 우리프라이빗에쿼티자산운용 우리신용정보 우리편드서비스 우리에프아이에스 우리금융경영연구소